

安祿山の亂 중 王維 失節의 實體 淺析*

朴三洙**

◁ 목 차 ▷

- I. 머리말
 - II. 왕유 실절의 史實과 후세의 摺책
 - III. 왕유 실절의 실제 推論
 - 1. 史實의 真相
 - 2. 왕유의 眞心
 - 3. 실절의 실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盛唐 자연시의 거장 王維(701-761)는 약관에 처음 벼슬길에 오른 이후 終身 得意하지 못한 벼슬아치로, 오랜 세월 몸은 벼슬하면서도 마음은 避世 은둔한, 실로 고뇌에 찬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신세를 비판하거나 厭世에 빠지지 않았으며 그 특유의 초탈적 삶을 통해 심리적 위안과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였다.¹⁾ 한데 그런 그도 안녹산 난의 와중에 반군의 포로가 되어 失節을 감내해야 하는 시련을 겪은 이후에는 일생 최대의 치욕과 최악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시종 회한에 쌓여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하였다. 또한 그 亂中 실절의 역사적 사실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1) 왕유가 심리적 위안과 정신적 해탈을 추구한 그 나름의 생활 방식은 대개 '深厚한 情感 생활', '自適한 은거 생활', '독실한 종교 생활', '情懷 어린 문예 생활'로 요약되는데, 자세한 것은 朴三洙 〈試述王維的心理安慰和精神解脫〉:《齊魯學刊》2007年第1期 참조.

하였다.

사실 왕유는 후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隱逸 高士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때문에 그의 일생 사적 가운데 유일한 이 오점은 후세에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그래서인가 사계에서는 이미 왕유 실절의 史實을 재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²⁾, 대개 史傳 기록의 眞僞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본고는 사계의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왕유 실절의 전후 맥락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며, 왕유 본인의 진심은 진정 무엇이었는지 보다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 실체를 여실히 살펴봄으로써 그의 爲人과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왕유 실절의 史實과 후세의 질책

唐 왕조는 초기 太宗의 ‘貞觀의 治’ 이후 玄宗 때에 이르러 이른바 ‘開元의 治’로 다시 한 번 성세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집권 후기에 접어든 현종은 점차 賢君의 모습은 사라지고 昏君의 우매함만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李林甫, 楊國忠으로 이어지는 간악한 재상들이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임금을 誤導하는 가운데 현종은 전기와는 달리 충신의 직언보다는 간신의 감언에 이끌리며 날로 황음무도함을 더해 갔다. 당시 조정 집권 세력의 부패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민생은 극한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오랜 세월 반역의 뜻과 힘을 키우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절도사 안녹산에게 이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하여 天寶 14년(755) 겨울 安祿山은 마침내 난국의 원흉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일으켜 경성 장안을 향해 진격하였다. 장장 8년간 이어지며 당 왕조 성쇠의 분수령이 된 ‘安史의 난’이 일어난 것이다.

2) 楊軍이 〈王維事迹證補〉(中國唐代文學學會《唐代文學論叢》1982年 第2期)와 〈王維受僞職史實甄別〉(中國王維研究會《王維研究》第一輯)에서 王維의 〈大唐故臨汝郡太守贈秘書監京兆韋公神道碑銘〉一文을 근거로 사전 기록의 허위성을 지적한 이래 陳鐵民(〈王維生平五事考辨〉;《王維新論》북경,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0)과 畢寶魁(〈王維安史之亂「受僞職」考評〉;《遼寧大學學報》1998年 第2期)가 이에 가세해 부연하였다. 반면 張炳蔚는 〈兩《唐書·王維傳》與《韋斌碑》所載王維陷賊事異同辨析〉(《文教資料》2005年 第31期)에서 앞서사람과는 일부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논술 과정에 그 견해를 재반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가의 명운을 바꾼 대 환난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왕유는 불행히도 치욕적인 失節之士란 오명을 남기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왕유 실절의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正史의 〈王維傳〉이다. 먼저 《舊唐書》를 보자.

안녹산이 洛陽과 長安 두 都城을 함락하자 현종은 장안을 떠나 蜀 땅으로 피난하였는데, 왕유는 미처 扈從(임금의 수레를 호위하여 따름)하지 못하고 반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자 왕유는 일부러 약을 먹고 설사를 하는가 하면 말 못하는 병에 걸린 척하였다. 하지만 안녹산은 평소부터 왕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사람을 보내 왕유를 낙양으로 모시게 하였다. 그리고 普施寺에 연금한 뒤 반군의 관직을 맡으라고 강박하였다. 안녹산은 凝碧宮에서 그 일당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었는데, 당시 악공들은 모두 梨園弟子(현종 때 악공을 배양하던 기관의 藝人)들과 教坊(당대에 비로소 설치된, 궁정의 음악을 관장하던 官署) 공인(예인)들이었다. 왕유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비통하기 그지없어 남몰래 시를 지어 읊기를 「만백성 집집마다 가슴 아픈데 들관의 연기 거둬 이나니 / 문무백관은 언제 다시 임금님을 알현할 수 있으리? / 가을 해나무 잎은 텅 빈 궁중에 떨어져 날리는데 / 응벽지 연못가에 관현의 풍악이 웬 말이더냐?」라고 하였다. 안녹산의 반란이 평정되고 나서 반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벼슬아치들을 모두 세 등급으로 나누어 論罪하였다. 한데 왕유는 그의 ‘응벽시’가 일찍이 행재소에 전해져 숙종이 그 뜻을 아주 가상히 여긴 데에다 마침 동생 王縉이 자신의 刑部侍郎 벼슬을 삭탈하고 형 왕유의 죄를 면해줄 것을 청원하매 숙종이 왕유를 특별히 용서하고, 太子中允에 문책 제수하였다. 왕유는 乾元 연간에는 太子中庶子·中書舍人으로서 자리를 옮겼고, 나중에는 또 給事中에 올랐다가 다시 尙書右丞으로 전임되었다. (祿山陷兩都，玄宗出幸，維扈從不及，爲賊所得。維服藥取痢，僞稱瘡病。祿山素憐之，遣人迎置洛陽，拘於普施寺，迫以僞署。祿山宴其徒於凝碧宮，其樂工皆梨園弟子·教坊工人。維聞之悲惻，潛爲詩曰：「萬戶傷心生野煙，百官何日再朝天？秋槐葉落空宮裡，凝碧池頭奏管絃。」賊平，陷賊官三等定罪，維以凝碧詩聞于行在，肅宗嘉之，會縉請削己刑部侍郎以贖兄罪，特宥之，責授太子中允。乾元中，遷太子中庶子·中書舍人，復拜給事中，轉尙書右丞)《舊唐書》卷190下〈王維傳〉)

한편 《신당서》〈왕유전〉은 《구당서》의 내용을 축약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안녹산이 평소부터 왕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祿山素憐之)」를 「안녹산이 평소부터 왕유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祿山素知其才)」로, 「반군의 관직을 맡으라고 강박하였다(迫以僞署)」를 「반군의 급사중 벼슬을 하도록 강박하였다(迫爲給事中)」³⁾

로 대체시켰을 뿐이다. 아무튼 안녹산 반군의 포로가 되어 僞職(반군의 관직)을 강요받았다는 이 史傳 기록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왕유의 생애 사적 가운데 그 '실절'의 오점에 주목하며 나름의 견해로 논란하게 하였다.

왕유의 실절에 대한 후세인들의 견해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유감스러워하다 못해 호된 질책을 쏟아내었다. 그 선봉에 선 이는 바로 남송의 유학자 朱熹이다.⁴⁾

왕유는 시를 잘 지어 開元 연간에 이름이 났는데,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군에게 사로잡혔으나 殉國하지 못하고 난이 평정된 후에도 요행히 처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爲人을 칭송할 가치도 없거니와 詩語도 비록 청초하고 고아하기는 하나 나약하고 기개가 부족하다.(維以詩名開元間, 遭祿山亂, 陷賊中, 不能死, 事平復, 幸不誅. 其人既不足言, 詞雖清雅, 亦萎弱少氣骨)(《楚辭後語》卷四 王維〈山中人〉題解)⁵⁾

기개 있는 文士라면 국난의 와중에 반군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절조를 지켜 殺身成仁했어야 하거늘 왕유는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니 그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詩風조차 나약해 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元初의 성리학자 劉因(1249-1293)도 주희의 질책에 가세하였다.

왕유는 빼어난 재능으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데에다 천하 사람들이 또 그를 고결한 선비로 대하고, 그 자신은 거만히 전생에는 화가였던 것으로 자처하지만⁶⁾ 그의 인품은 이미 칭송할 가치가 없도다. 그러나 만약 그가 물 한 줄기, 돌 한 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정밀한 형상을 읊겨 그리며 어떻게 그 자신의 심신을 수양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반군에게 잡혀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구차히 화를 면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바 그가 도덕을 어지럽히고 도리를 어김이 이렇듯 심하도다. 한데 어찌 그의 自負가 본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 세상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 절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장차 자신을 명망 높은 大臣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논

3) 《신당서》에서는 '급사중' 벼슬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나 사실 그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楊軍〈王維受僞職史實甄別〉(위에 보임) 참조.

4) 董就雄〈王維詩評解之域外視野〉: 「這(즉 주희의 王維〈山中人〉題解를 이름)應是對王維陷賊而不能自殺的最早斥責。」(中國王維研究會《王維研究》第五輯, 225쪽)

5) 陳鐵民《王維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 1260쪽에서 재인용.

6) 왕유는 〈題輞川圖〉詩에서 스스로 「宿世謬詞客, 前身應畫師。」라고 한 바 있다.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특히 당시 조정에서 높은 名望을 향유하며 권문귀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공경하며 환대하게 하고, 親王(황제의 친족으로 왕에 봉해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스승이나 벗으로 대하게 한 이는 곧 이렇듯 詩畫에 능하면서 임금을 저버리고 역적을 섬긴 왕유 같은 무리였을 것이라 생각한다.(維以清才位通顯, 而天下復以高人目之, 彼方偃然以前身畫師自居, 其人品已不足道. 然使其移繪一水一石一草一木之精緻, 而思所以文其身, 則亦不至於陷賊而不死, 苟免而不耻, 其紊亂錯逆如是之甚也. 豈其自負者固止於此, 而不知世有大節, 將處已於名臣乎? 斯亦不足議者. 予特以當時朝廷之所以享盛名, 而豪貴之所以虛左而迎, 親王之所以師友而待者, 則能詩能畫·背主事賊之維輩也)(《輞川圖記》)⁷⁾

왕유의 실절에 대한 유인의 비판은 그 신랄함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야말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하다. 원대의 성리학자 吳師道(1283-1344) 또한 왕유 비판에 목청을 높였다.

왕유의 문사는 청초하고 고아하며, 풍도는 고상하고 비범하며 산림 사이에서 초탈 自適하나니 속세의 사람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영화로 우면서도 반군에게 잡혀서는 순국하지 못해 그 영향이 이 그림에까지 미치니 애석하다!(維文詞清雅, 風度高勝, 超然山林間, 疑其非世之人. 而居位顯榮, 汚賊不能死, 適累是圖, 惜哉)(《評輞川圖》)⁸⁾

이는 오사도가 왕유의 <망천도>를 보고 남긴 글인데, 순국하지 못한 왕유의 행적이 결국 그 그림의 가치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못내 아쉬워하는 어투가 유인에 비하면 한결 부드럽다. 明代에도 왕유의 실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이가 적지 않다. 王世貞(1526-1590)은 당대 시단의 3대가 이백, 두보, 왕유를 비교하며 세 시인이 막상막하의 위세로 鼎立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유독 왕유의 기개와 절조에 대해서는 은근한 貶辭를 덧붙였는데, <書李白王維杜甫詩後>에서 이르기를「왕유는 성정이 나약해 목숨을 바쳐 백성을 편안케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뜻이 기꺼이 반군에게 등용되고자 한 것은 아니다.(摩詰弱, 故不能致死安民, 然其意非肯爲之用也)」⁹⁾라고 하였다. 이제 明末 清初 顧炎武(1613-1681)의 비판을 보자.

7) 劉因《靜修先生文集》(北京, 中華書局, 1985) 卷18.

8) 閔澤平《唐宋才子的眞實生活》: 書包網(<http://www.bookbao.com/>)에서 재인용.

9) 위와 같음.

예로부터 글로 사람을 기만한 자로 사영운만 한 이가 없고, 그 다음이 바로 왕유다. ……왕유는 ……普施寺에 연금되어 위직을 맡도록 강요받았다. 안녹산이 凝碧池에서 그 일당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며 왕유가 시를 지어 이르기를:「……」라고 하였다. 반란이 평정되고 왕유는 감옥에 갇혔는데, ……숙종이 특별히 용서하고 태자중윤에 문책 제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詩文으로 교유한 선비들은 대개 왕유를 비호하는데 이를테면 두보는 그를 ‘高人 王右丞’이라 하였나니 세상에 고결한 품성의 고인으로 역적에게 벼슬한 이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古來以文辭欺人者, 莫若謝靈運, 次則王維……王維……拘於普施寺, 迫以僞署. 祿山宴其徒於凝碧池, 維作詩曰:「……」賊平, 下獄, ……肅宗乃特宥之, 責授太子中允. ……而文墨交遊之士多護王維, 如杜甫謂之「高人王右丞」, 天下有高人而仕賊者乎?)(《文辭欺人》)¹⁰⁾

고염무는 왕유가 역적의 무리에 ‘投身’한 후 詩作을 통해 충성과 節義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왕유야말로 역사상 ‘글로 사람을 기만한 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고염무는 明 왕조의 유민으로, 붓을 던지고 직접 抗清 義兵에 참여하는 등 옛 왕실의 복원을 위해 불굴의 투지를 불살랐다. 하지만 결국 明국의 한을 삭이지 못했으니 실절과 사면으로 점철된 왕유의 사적은 그의 義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학자 李睟光(1563-1628)도 왕유의 실절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왕유 <金屑泉>시에 이르기를 「날마다 금설천 샘물을 마시면 / 청춘을 분명 천여 년은 유지하여 / 취봉 수레 타고 문리 용을 몰고 날아올라 / 깃털 부절 휘날리며 옥황상제를 알현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아마도 왕유는 輞川에서 날마다 이 샘물을 마셨겠지만 천 살 넘게 살지도 못하고 또 옥황상제를 알현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안녹산에게 稱臣하고 위직을 맡았다가 겨우 처형을 면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떠났으니, 그 효과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王維<金屑泉>詩曰:「日飲金屑泉, 少當千餘歲. 翠鳳翊文螭, 羽節朝玉帝.」蓋維在輞川日飲是泉, 而不能千餘歲, 且不能朝玉帝, 而朝於祿山, 受僞官, 僅免死以卒. 其效果安在哉?)(《芝峯類說》)¹¹⁾

이수광은 <금설천> 詩意를 빌려 왕유가 芒天에서 은거하며 분명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금설천 샘물을 마셨겠지만 장생하지도, 羽化登仙하지도 못하고 위직을 맡았

10) 顧炎武 著/黃汝成 集釋《日知錄集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卷10.

11) 李睟光《芝峯類說》(서울, 을유문화사, 1980) 原文(上) 文章部三: 唐詩.

다가 겨우 한 번 죽음을 면하는 데 그쳤다는 식으로 냉소하였다.

이렇듯 兩《唐書》를 통해 전해진 왕유의 난중 실절의 史實은 후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구천지하에서도 이승의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다.

Ⅲ. 왕유 실절의 실체 추론

1. 史實의 真相

이른바 正史는 정통적인 역사 체계에 의해 서술된 역사서로, 역대 왕조들이 모두 이를 정통 史書로 받들었다. 때문에 野史나 稗史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위를 가지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람이 이루어낸 그 어떤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왕유 실절의 사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 진상을 여실히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안녹산 난의 와중에 많은 벼슬아치들이 반군에게 사로잡힐 당시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왕유 〈大唐故臨汝郡太守贈秘書監京兆韋公神道碑銘〉(이하 〈韋公碑〉로 약칭)의 일단을 보자.

역적 안녹산은 ……幽州·薊州에서 모반을 시작하여 점차 洛水를 육박해왔다. ……도망가려던 사람들은 이미 역적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병을 핑계로 위직을 사절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사지로 내몰렸다. 반군은 촘촘히 울가미를 치고 멀리 함정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넘어지고,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기만 하면 걸리고 말았으니 지혜가 있어도 스스로 도모할 수가 없고, 용기가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당시 반군은 그들의 騎兵을 시켜 무기로 韋公을 위협한 후 위직에 임명하였으며, 公의 妻子를 인질로 삼고 關리를 보내 자기네 명령에 따르도록 협박하였다. 위공은 안녹산의 심복들을 주변에서 떨어뜨리고 틈을 노려 政의 의 이름으로 大逆 惡人 안녹산을 없애 그 엄청난 치욕을 씻으려 하였다. 오호라, 슬프도다! 潼關이 무너지자 京성이 놀라고 천자의 수레가 축 땅으로 피난하였으며 ……날카로운 이빨의 野獸들이 도성으로 쳐들어와 이빨을 갈며 사람을 잡아먹는 형국이었다. 京성의 높은 벼슬아치는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 풀이요, 낮은 벼슬아치는 상갓집 개 신세가 되었다. 나는 거짓으로 병에 걸린 척하며 틈을 타 달아나려 하였으나 반군들에게 의심을 사 연금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열흘 동안이나 국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았고, 또 대소변도 보지 않았다. 시퍼런 칼을 들고 감시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려오고, 붉은 몽둥이를 들고 지키는 사람도 다섯이나 되었다. 그들은 칼코등이로 내 입을 가격하는가 하면 미늘창으로 내 목을 찌르기도 하였는데, 결국 나는 결박당한 채 반군의 관아로 이송되었다. 한데 실로 천행에 힘입었으니, 하늘님께서 나에게 재난을 내리지 않으셨다. 반면 역적 안녹산은 온몸에 病痛이 심해 다른 사람을 죽일 정신도 없이 자기 몸의 惡瘡 때문에 근심에 싸여 있었다.(逆賊安祿山……始反幽薊, 稍逼溫洛. ……將逃者已落穀中, 謝病者先之死地. 密布羅網, 遙施陷穽, 舉足便跌, 奮飛即挂. 智不能自謀, 勇無所致力. 賊使其騎劫之以兵, 署之以職, 以孥爲質, 遣吏挾行. 公潰其腹心, 候其間隙, 義覆元惡, 以雪大恥. 嗚呼! 上京既駭, 法駕大遷, ……鑿齒入國, 磨牙食人. 君子爲投檻之猿, 小臣若喪家之狗. 僞疾將遁, 以猜見囚. 勺飲不入者一旬, 穢溺不離者十月¹²⁾; 白刃臨者四至, 赤棒守者五人. 刀環築口, 戟枝叉頸, 縛送賊庭, 實賴天幸, 上帝不降罪疾, 逆賊恫瘝在身, 無暇戮人, 自憂爲厲¹³⁾)

여기서 '위공'은 현종 때의 重臣 韋斌을 이른다. 그는 안녹산 난중에 반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반군이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어 후일을 도모할 요량을 하고 일단 위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회를 틈타 역적 안녹산을 죽여 스스로 치욕도 씻고 報國도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결국 그는 내심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독약을 삼키고 자진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다.(吞藥自裁, 嘔血而死)」(《위공비》) 양경 수복 후 위공은 논죄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가당한 마음씨를 여여뼈 여긴 肅宗으로부터 지극한 칭송과 함께 秘書監을 追贈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은 그가 이름다운 덕을 잃지 않은 것을 기린 것이라고 하였다.(天下之人, 謂之賞不失德矣)」(위와 같음) 이렇듯 임금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비문은 필시 왕유가 어명을 받들어 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내용이 당시의 사실이나 실정에 부합함은 또한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먼저 《당서》에서는 왕유가 축 땅으로 피난하는 현종을 「미처 호종하지 못하고 반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그 책임을 왕유 자신에게 돌리는 어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전 기록에 따르면 안녹산 반군이 황하를 건넌 후 파죽지세로 陳留, 滎陽을 거쳐 東都 洛陽까지 점령하였고, 天寶 15년 6월에는

12) 月: 陳鐵民 교수는《王維生平五事考辨》(주2에 보임)에서 이를 '日'의 잘못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매우 타당한 견해로 여겨짐.

13) 陳鐵民《王維集校注》(주5에 보임) 권11.

경성 장안의 마지막 보루인 潼關마저 함락시켰다. 이에 다급해진 현종은 며칠 뒤 여명을 틈타 피난길에 올랐는데, 당시 호종한 것은 오직 양귀비와 太子, 재상 양국충과 韋見素, 내시 高力士 그리고 親王 등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임금이 장안을 떠난 사실조차 문무백관들은 대다수가 알지 못하였다.(上之發長安也, 群臣多不知)」(《자치통감》 권218) 결국 <위공비>에서 보듯 황망하고 무력한 상황에서 왕유가 반군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은 현종의 피난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면서 극히 제한된 수행 인원에 들 수 없는 給事中 신분이었던 데서 비롯된 불행한 결과였을 따름이다. 이는 재상 陳希烈, 재상 張說의 長子 張均·次子 張洎 등 일부 인사들이 스스로 반군에게 투항한 것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司馬光이 현종의 幸蜀 史實을 기술하면서 「신분이 낮은 신하와 巡邏 관리들은 피난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피난 명령도 받지 못하였으며 당일 아침에야 비로소 천자 親征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또 행재소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였거늘 오히려 그들이 호종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니 어찌 너무 가혹한 게 아니겠는가!(至於微賤之臣, 巡徼之隸, 謀議不預, 號令不及, 朝聞親征之詔, 夕失警蹕之所, 乃復責其不能扈從, 不亦難哉!)」(《자치통감》 권220)라고 개탄한 것도 바로 그 같은 정서의 발로이다.

다음으로 《당서》에서는 「안녹산이 평소부터 왕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재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왕유를 낙양으로 모시게 하였다. 그리고 보시사에 연금한 뒤 반군의 관직을 맡으라고 강박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왕유가 위직을 강요받은 배경에는 왕유의 爲人과 자질을 높이 산 안녹산의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자치통감》에 이르기를 「안녹산이 (장안을 점령한 반군들에게) 百官, 환관, 궁녀 등을 찾아내어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잡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될 때마다 바로 바로 병사들을 시켜 낙양으로 호송하였다.(祿山命搜捕百官宦者宮女等, 每獲數百人, 輒以兵衛送洛陽)」(권218)라고 하였고, <위공비>에서는 「그들은 칼코등이로 내 입을 가격하는가 하면 미늘창으로 내 목을 찌르기도 하였는데, 결국 나는 결박당한 채 반군의 관아로 이송되었다.」고 하였으니 왕유 또한 반군의 수많은 포로 중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요, 결코 특별대우를 받아 '모셔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당서》의 기록은 楊軍이 '추측의 말'이요, '소설가의 건강부회'라고 평하였듯이¹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상상의

14) 楊軍 <王維事迹證補>와 <王維受僞職史實甄別>(모두 주2에 보임) 참조.

산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흑자는 평소 현종이 樂舞를 즐기는 것을 「안녹산이 보고 아주 좋아하여 장안을 함락한 후 부하에게 명해 樂工을 잡아들이고, 악기와 舞衣를 신고, 舞馬와 코뿔소, 코끼리를 몰아 모조리 낙양으로 옮겨갔을(安祿山見而悅之, 既克長安, 命搜捕樂工, 運載樂器舞衣, 驅舞馬犀象皆詣洛陽)」(《자치통감》 권218) 정도였음을 들어 첫 出仕에 太樂丞 벼슬을 하는 등 본시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던 왕유에 대해 안녹산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나 그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거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¹⁵⁾ 이 같은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나 확증이 없는 데에다 왕유가 스물한 살에 첫 출사하여 당시 쉰여섯 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또 다른 ‘소설가의 건강부회’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튼 대대로 우월한 권위와 절대적 신뢰성이 共認되어 온 정사의 이상과 같은 기록상의 신중하지 못함은 결국 후세에 왕유 실절에 대한 곡해를 낳는 데 하나의 빌미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왕유의 진심

한 사람의 행위는 당연히 그 마음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제약도 없는 완전한 자유 의지에 근거한 경우이어야 한다. 공자가 일찍이「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들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아들의 행동을 보아야 한다.(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論語》〈學而〉)라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니, 곧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떤 일을 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기 어려우므로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를 보고 아들의 효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극도로 억압된 의지 하에서 실절이란 오점을 남긴 왕유의 진심을 들여다보고자 함도 또한 그와 유사한 견지에 다름 아니다.

왕유는 반군에게 잡히자 몸이 망가지는 위험도 불사하고 극약을 먹어 고의로 설사를 하는가 하면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척하며 어떻게든 감시가 소홀한 때를 틈타 달아나려고 하였다. 하지만 뭔가 낚새를 알아차린 반군들에 의해 철저히 연금을

15) 張炳蔚, 위의 논문.

당하고 말았다. 이에 왕유는 열흘 동안이나 국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대소변도 보지 않으며 버텼는데, 그것은 그로서는 결연히 죽음을 무릅쓴 강력한 항거였다.

왕유는 〈위공비〉에서 자신이 결박당한 채 반군의 관아로 이송된 후 실로 하늘이 도와 역적 안녹산이 온몸에 퍼진 악창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바람에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은 조금도 반군의 요구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같은 뜻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왕유가 연금되어 있으면서 지은 두 수의 시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至德 원년(756) 8월 왕유는 연금 상태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知友 裴迪로부터 기막힌 이야기를 듣는다. 역적 안녹산이 반군들을 격려하고자 낙양 禁苑의 凝碧池 연못가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며 梨園의 악공들에게 공연을 명했는데,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다가 말고 모두 일시에 흐느껴 울었으며, 특히 그 가운데 雷海靑이란 악공은 악기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현종이 피난 간 서쪽을 향해 통곡하며 항거하다가 사지가 찢기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왕유는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 배적에게 읊어 보였는데, 제목이 길어 후세에 〈凝碧池〉詩로 줄여 일컬어지는 〈菩提寺禁裴迪來相看說逆賊等凝碧池上作音樂供奉人等舉聲便一時淚下私成口號誦示裴迪〉와 그 후속편 〈口號又示裴迪〉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전자를 보자.

萬戶傷心生野煙	만백성 집집마다 가슴 아픈데 들판의 연기 거둬 이나니
百官何日再朝天	문무백관은 언제 다시 임금님을 알현할 수 있으리?
秋槐葉落空宮裡	가을 왜나무 잎은 텅 빈 궁중에 떨어져 날리는데
凝碧池頭奏管絃	응벽지 연못가에 관현의 풍악이 웬 말이더냐?

진정 가슴 가득 逆徒에 대한 悲憤의 격정과 국난에 대한 감개어린 우수가 솟구쳐 절로 읊어낸 絕唱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는 어투로 장안과 낙양 兩京이 모두 반군에게 함락된 후의 참상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 봉화 연기는 끊어질 줄 모르고 백성들은 집집마다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며 國破家亡의 엄청난 변고에 가슴이 아프고, 축 땅으로 피난한 임금을 따르지 못한 문무백관들은 언제 다시 용안을 뵈 수 있을지 암울한 현실에 침통함을

금치 못한다. 이는 곧 나라의 불운과 백성의 불행을 비통해 함은 물론 임금과 조정
에 대한 그리움에 애 태우는 시인의 일편단심을 투영함이다.

작품은 또 후반부에서는 국난의 원흉에 대한 분개의 정을 토로하였는데, 영화를
극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간 데 없고 가을바람 속에 왜나무 잎만 쓸쓸히 떨어져 날
리는 가운데 인적조차 드문 황막한 無人境으로 변해 버린 황궁에서 기증스런 역도
는 뻔뻔히 풍악을 울린다. 게다가 항거하는 이원의 악공들을 무참히 죽이기까지 하
였다니 시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데, 그 또한 충군애국의 감정
에 다름 아니다. 사실 明代 王鏊가 《震澤長語》에서 「응벽지 연못가에 관현의 풍악
이 웬 말이더냐?」에선 결코 망국을 말하지 않았지만 망국의 의미가 그 말의 표면적
인 의미 밖으로 넘친다. (凝碧池頭奏管絃, 不言亡國, 而亡國之意溢於言外)¹⁶⁾라
고 하였듯이 왕유의 詩의 서정은 자못 완곡하지만 그 의분과 걱정을 느끼기에는 부
족함이 없나니 詩意의 심장함이 滿滿하다.

이제 후자, 즉 〈口號又示裴迪〉을 보자.

安得捨塵網	어떻게 이 티끌세상의 그물을 벗어 던지고
拂衣辭世喧	옷자락 떨치며 속세의 번잡함을 떠날 수 있으리?
悠然策藜杖	한가로이 명아주 지팡이 짚고
歸向桃花源	피안(彼岸)의 도화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라

이 시는 전자와는 판이한 서정을 보여준다. 임금마저 경성을 버리고 피난한 지금
반군의 포로 신세가 되어 위직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인 시인 왕유는 기우는 국운을
과연 어느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과 절망감에 괴로워한다.
그는 기왕에 回天¹⁷⁾할 가망이 없다면 속세의 번뇌와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與世
無爭의 桃花源으로 은둔해 들어가 자적한 삶을 살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이는 물
론 현실 도피의 소극적 처세 태도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무력하기 그
지없는 시인의 하릴없는 탄식임을 생각하면 애달프기 짝이 없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왕유가 반군에게 사로잡힌 후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그가 가졌던 진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

16) 王友懷《王維詩選注》(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8) 202쪽에서 재인용.

17) 국립국어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회천(回天): 형세나 국면을 크게 바꾸어 쇠퇴한 세력
을 회복함.」(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다. 비록 후세엔 失節之士란 오명과 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의 野獸들이 도성으로 쳐들어와 이빨을 갈며 사람을 잡아먹는 형국」이 날로 도를 더해 가는 국가 사회적 위난의 와중에 그는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오로지 환난에 처한 나라와 도탄에 빠진 백성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또한 충군애국의 赤心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唐軍이 兩京을 잇달아 수복하고 조정이 반군 점령 하에서 위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논죄와 가차 없는 처벌을 단행할 때¹⁸⁾ 왕유도 그 대상에 올랐지만 숙종의 특별 사면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 같은 赤心이 御心을 크게 감동시켰기 때문이다.¹⁹⁾

3. 실절의 실체

「굶어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나 절조를 잃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다.(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²⁰⁾ 이는 宋代 성리학자 程頤가 한 말로, 가정 윤리상의 婦道를 논하는 가운데 하나의 보편적 사회 윤리의 준칙을 강조하였다. 고대 사회, 특히 유가사상이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여타의 사상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사회 전체가 거의 봉건 예교의 질곡에 빠져 있었던 송대 이후에는 절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 이 같은 유가적 윤리 전통이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였다. 주희를 필두로 한 후세의 유가적 성향의 논자들이 왕유 실절의 주객관적 배경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거부한 채 혹독한 비판을 쏟아낸 것 또한 그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18) 당시 논죄 초기에는 「반군에게 잡힌 벼슬아치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나라를 배반하고 僞朝를 따른 것이니 법률에 따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한다.(諸陷賊官背國從僞, 准律皆應處死)」는 주장이 힘을 얻었으나 그 처벌 수위에 대한 며칠에 걸친 논쟁 끝에 (위직을 맡는 등) 죄가 아주 중한 자는 棄市하고 가장 경한 자는 좌천시키는 등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논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자치통감》 권220 참조

19) 당시 논죄의 도마에 오른 왕유가 숙종의 특사로 처형을 면한 데에는 <응벽지>시가 곧바로 행재소에 전해졌고, 한창 반군 토벌에 여념이 없던 숙종이 반군에 억류된 朝臣의 우국충정을 접하고 정치 도의상 진심어린 성원에 감격해 마지않은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데 <구당서> <왕유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刑部侍郎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던 동생 王縉이 자신의 관직을 삭탈하고 형 왕유의 죄를 감면해 줄 것을 청원한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재론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박삼수 <詩佛 王維의 苦惱 初探>; 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제31집 참조.

20) 程頤, 程頤 《二程遺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356쪽.

楊軍의 고증에 의하면 안녹산 반군은 체포 억류한 唐朝의 신하들 가운데 소수의 인사들만 실질적으로 임용해 일정한 임무를 부여한 반면 일반 朝臣들은 비록 위직을 맡을 것을 강박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들이 실제로 관련 직무를 수행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의도는 단지 그같이 僞朝의 위세와 정통성을 粉飾해 당시 숙종의 행재소와 힘겨루기를 하고자 한 것일 따름이었다.²¹⁾ 아무튼 반군에게 사로잡힌 후 나름대로 강력히 항거했던 왕유는 위조의 관직 명단에 그 이름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가 위직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정사의 신중치 못한 기록이 낳은 곡해와 위난의 와중에도 시종 흔들림이 없었던 왕유의 赤心을 감안할 때 그의 실절은 결코 후세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變節'이나 '不忠'의 표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왕유가 숙종의 특사를 받고 太子中允으로 復官된 후 杜甫가 지어준 〈奉贈王中允維〉詩를 보자.

中允聲名久	中允의 명성은 오래도록 자자한데
如今契闊深	근간에 困苦함이 진정 심각하였네
共傳收庾信	모두가 칭송하길, 그댄 梁元帝가 庾信을 거둬와 같거니
不比得陳琳	曹操가 陳琳을 얻음과는 사뭇 다르다네
一病緣明主	그대 반군에 잡혀 병든 척 한 건 오직 임금님 때문이요
三年獨此心	삼년 내내 간직한 건 유독 충군애국의 赤心이었네
窮愁應有作	사람은 곤궁해 시름할 땐 응당 시작을 남기나니
試誦白頭吟	내 그대의 〈응백지〉시를 한번 읊어보노라

왕유는 南朝 梁代의 庾信에게 비견된다. 유신은 侯景의 난 때 建康을 舍하고 반군을 막다가 패퇴해 江陵으로 달아났으나 난이 평정된 후 元帝가 다시 거두어 御史中丞에 임명하였으며, 나중에 원제의 명을 받고 西魏로 出使했을 때 공교롭게도 양나라가 서위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바람에 그곳에 억류되어 있었으나 종신토록 망국의 한과 애국의 정을 간직한 채 애수에 찬 삶을 살았다. 하지만 왕유는, 漢末에 처음엔 袁紹를 따르다 나중에 曹操를 섬긴 陳琳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시인의 原注에서 말한 대로 「玄宗께서 이르기를 '역적을 따른 신하 가운데엔 조정을 비방하기를 진림이 조조를 위해 격문을 쓴 것처럼 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지만 왕

21) 자세한 것은 楊軍 〈王維受僞職史實甄別〉(주2에 보임) 참조.

유만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응벽지>시를 지었으므로 진림과는 같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明皇云: 從賊之臣, 毀謗朝廷, 如陳琳之檄曹操者多矣. 王維獨痛賦秋槐落葉詩, 故曰不得比陳琳也)」 아무튼 이 같은 견해들은 ‘共傳’, 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하며 칭송한 말이니, 분명 당시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음이다. 또한 晚唐 시인 儲嗣宗은 <過王右丞書堂>시에서 왕유 生前의 성취를 한껏 찬미하는가 하면 또 반군에게 곤욕을 치른 일을 떠올리며 「漢代的 蘇武 같은 신세에 感慨도 깊어라(感深蘇屬國)」²²⁾라고 하였는데, 곧 실절의 아픔이 있는 왕유를 한무제 때 흉노로 出使했다가 선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투항하지 않고 19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환국해 전속국(典屬國)에 제수되었으며, 후세엔 충신과 애국자의 전형으로 칭송되는 소무에 비유한 것이다. 이는 모두 왕유가 반군의 손아귀에 떨어졌어도 시종 守節과 忠君의 의지와 충정을 잃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후세 사람들이 견지하는 비판적 시각의 핵심은 바로 왕유가 殉節, 즉 충절을 위해 죽음으로써 成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세의 대표적 왕유 연구가이자 애호가의 한 사람인 清代 趙殿成조차도 「왕유 만년의 절개에 대해 혈뜰는 이들이 많으나더욱이 그는 약을 먹고 설사를 하며 말도 못하는 척 하였으며, <응벽지>시를 짓기도 하였으니 그 마음은 잠시도 임금을 잊은 적이 없거니 다만 충절을 위해 자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右丞晚節頗有訾訾之者,況其服藥取痢疴瘡, 賦凝碧池詩, 心未嘗忘君, 惟未能引決耳)」²³⁾라고 하며 왕유가 순절하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수많은 순절과 순국은 언제나 숭고한 뜻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忠義의 절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순절과 순국을 강요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왕유는 열아홉 살 때 지은 <李陵詠>시에서 동정과 비탄의 필치로 한무제 때의 비운의 명장 李陵을 기린 바 있는데, 오직 죽음으로써 절조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요 오히려 후일을 도모해 장차 기필코 치욕을 씻고 입공 보국하겠다는 이릉의 심중을 헤아리며 무제의 寡恩薄德함에 울분을 토로하였다.²⁴⁾ 왕유가 안녹산의

22) 清·彭定求 外《全唐詩》(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卷594-22.

23) 趙殿成《王摩詰全集箋注》(台北, 世界書局, 1974)〈序〉.

24) 자세한 것은 박삼수 <詩作을 통해 본 王維 初年の 意識 世界>: 영남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 제52집 참조.

난 때 실절의 치욕을 감수하며 하루빨리 조정의 군대가 반군을 격퇴하여 「다시 임금님을 알현할 수 있(再朝天)」기를 기대한 것 또한 이와 유사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요컨대 왕유는 진정 하릴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몸은 비록 실절의 명예를 쓰고 말았으나 마음만은 한시도 나라와 임금에 대한 심후한 정으로 애태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

IV. 맺음말

안녹산 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유는 반군으로부터 위직을 강요받았고, 갖은 항거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僞朝의 관직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치욕을 겪어야 하였다. 하지만 왕유의 실절은 유명무실한 虛名과 허상뿐이었으니, 난중 행적의 如何나 진심의 向背를 분석 고찰컨대 그가 변절하거나 변심했다는 어떠한 증거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시종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성심과 충심을 다하며 조정 신하로서 응분의 절조를 지켰다는 평가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듯하다. 왕유와 같거나 근접한 시대를 산 肅宗을 위시하여 杜甫와 儲嗣宗 등 많은 문사들이 진심 어린 이해와 동정을 아끼지 않으며 왕유의 충정과 赤心을 인정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그것은 또한 왕유 실절의 실체에 대한 결론성의 평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데 宋代 이후의 논자들은 그 진상과 실체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편견에 사로잡혀 「임금을 저버리고 역적을 섬긴 왕유」라는 식의 흑평을 쏟아내었으니 못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이해 당사자인 숙종이 왕유의 진심을 감지하여 특사를 내리고 복직을 시킨 일을 놓고 후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왈가왈부한 것은 애초에 이미 문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公正 無私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疑惑하게 된다.

【參考文獻】

- 後晉 劉昫 外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1
 北宋 歐陽修 外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1

- 北宋 司馬光《資治通鑑》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陳鐵民《王維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
- 張清華《詩佛王摩詰傳》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1
- 柳晟俊《王維詩研究》台北, 黎明文化公司, 1987
- 이용재《王維詩의 '官'과 '隱' 研究》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2.
- 陳鐵民〈王維生平五事考辨〉;《王維新論》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0
- 胡可先, 王慶顯〈王維與安史之亂〉;《淮陰師範學院學報》제24권
- 李俊標〈略論王維安史之亂後的心態〉;《安徽師範大學學報》제28권 제1기
- 畢寶魁〈王維安史之亂「受僞職」考評〉;《遼寧大學學報》1998年 第2期
- 張炳尉〈兩《唐書·王維傳》與《韋斌碑》所載王維陷賊事異同辨析〉;《文教資料》2005년 제31기
- 楊 軍〈王維事迹證補〉;中國唐代文學學會《唐代文學論叢》1982年 第2期
- 〈王維受僞職史實甄別〉;《王維研究》(제1집)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2
- 李菁, 楊友庭〈論安史之亂對王維思想的影響〉;《王維研究》(제3집)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2001
- 劉文剛〈杜甫與王維〉;《王維研究》(제3집)
- 史薇, 周建忠〈論安史之亂對王維晚年創作的影響〉;《江蘇社會科學》2010년제5기
- 金五德〈王維心態探微〉;《長沙水電師範學院學報》1990년 제1기
- 陳明寶〈王維人格另議〉;《溫州職業技術學院學報》제4권 제3기
- 王志清〈論王維的生存智慧〉;《江蘇社會科學》1998년 제1기
- 董就雄〈王維詩評解之域外視野〉;《王維研究》(제5집) 江蘇大學出版社, 2011
- 박삼수〈詩佛 王維의 苦惱 初探〉;영남중국어문학회《中國語文學》제31집
- 〈詩作을 통해 본 王維 初年の 意識 世界〉;《中國語文學》제52집
- 程廣海〈安史之亂探析〉;《渭南師範學院學報》2005년 增刊
- 李正春〈論古代失節文人心態〉;《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제19권 제3기
- 李雙龍〈從“餓死事小, 失節事大”看二程的倫理觀〉;《紅河學院學報》제8권 제5기
- 田 超〈“餓死事小, 失節事大”背後的自由意志問題〉;《道德與文明》2011년 제1기

【中文提要】

安史之亂中, 王維失節, 卽陷賊而迫受僞職是他一生最大的耻辱和痛苦。這污點使他死後都避免不了後世議論紛紛。如宋·朱熹最早批評王維「陷賊中, 不能死,」故「欺人既不足言, 詞雖清雅, 亦萎弱少氣骨。」(《楚辭後語》) 元初劉因

也斥責王維「陷賊而不死，苟免而不耻。」明·顧炎武又指責說：「古來以文辭欺人者，莫若謝靈運，次則王維。」我國朝鮮王朝李睟光已在顧炎武之前，也借着王維《金屑泉》一詩，批評王維在鞏川日飲了金屑泉，而不能有千歲之命，只不過在失節後論罪時免一死而已。（詳見《芝峰類說》）

王維《韋公碑》一文中提到過他在叛亂中的遭遇，即其被俘被監押的過程。而《舊唐書》本傳云：「玄宗出幸，維扈從不及，為賊所得。」這似是把其咎歸於王維，但據史傳和《韋公碑》等，其應為當時「上之發長安也，群臣多不知」（《通鑑》）的情況所致。本傳又云：「祿山素憐之，遣人迎置洛陽，……迫以偽署。」這似是說：王維的失節出於安祿山的重愛。但據《韋公碑》云：「刀環築口，戟枝叉頸，縛送賊庭。」這肯定並不是事實。

王維陷賊後，則以「偽疾將遁，以猜見囚，勺飲不入者一旬，穢溺不離者十月」（《韋公碑》）堅持了較長時間的抵抗。不只如此，他還作《凝碧池》一詩抒發了自己對唐朝的懷念及被叛賊拘縛的亡國之痛。該詩即刻「聞於行在，肅宗嘉之。」（本傳）賊平而論罪時，王維因而得到肅宗的特赦，這無疑為由於王維忠君愛國的赤心充分激動了「龍心」。

綜上，王維的失節決不是後世一些人所指責的變節及不忠的表現。故杜甫《奉贈王中允維》詩中說：「共傳收庾信，不比得陳琳。一病緣明主，三年獨此心。」晚唐儲嗣宗在《過王右丞書堂》詩中還把王維比之於漢代忠臣蘇武。不過，宋代以後的人士們都拘於「餓死事極小，失節事極大」（宋·程頤之語）的成見，只知吐出惡毒詆毀，而未能考慮王維失節的真相和實體，這實在令人感到遺憾。

【主題語】

王維，安祿山之亂，失節，史實，叱責，實體

투고일: 2011.10.15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